



예술로



어울림



목차

1

사업소개

- 1 예술로 어울림 사업이란
- 2 예술로 어울림 영덕 프로그램

2

정규형 프로그램

- 1 컬러풀댄싱키즈
- 2 영덕 무대잇단
- 3 영덕쭈민
- 4 더 울림
- 5 뮤지컬 인사이드 미

3

기획형 프로그램

- 1 도란도란 예술마을
- 2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 3 손에서 피어난 이야기
- 4 과사마을 전통이야기

4

결과공유회

1

사업소개

예술로 어울림 사업이란?
예술로 어울림 영덕 프로그램

예술로 어울림 사업이란?

예술로 어울림이란?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격차 완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진행된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소개

- 저출산·고령화·가족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절대인구 감소로 학령 및 생산인력의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지방소멸 가속화가 본격화됨
 - *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 `22년 전체 청년인구의 55%(742만명)가 수도권에 거주
 - *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전체 기초지역(시·군·구)의 46.7%(107개)이며, 그 중 100개는 비수도권임
-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시설·인력·프로그램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화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과 문화예술 향유 격차 심화, 정주 여건 취약 등

추진 근거

<국정 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3~'27)> 전략2. 더 가까이: 지역에서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과제('23.12.)> [전략2]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⑥사각지대 없는 향유 지원
 ⑦문화로 지역균형발전 ⑧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제14차 민생토론회>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 발족

추진 목적 및 방향

- 문화취약지역(산업단지·농산어촌·기타도심)의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활력 제고로 정주여건 향상

추진유형	1. 산업단지형	2. 문화취약형
지원필요성	-노후화,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 근로자들 유출, 구인난 심화 -지속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불균형 및 농산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심각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통한 삶의 활력 제고로 정주 여건 개선
중점방향	산업단지 근로자 및 문화취약 지역주민 수요 반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키워드 수요맞춤, 문화예술 활동, 지역자원 활동	
추진목표	정주여건 향상 및 인구유출 방지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 예술로 어울림
- 사업기간 | 2024년 4 ~ 12월 *프로그램 운영기간 6월 4주 ~ 12월
- 사업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 지원대상 |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운영이 가능한 기관·시설·단체
* 기초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단체·시설 등 주체 간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문화취약 지역민 대상 수요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원예산 | 총 60억원(민간경상보조금 100%)
 산업단지형 20억원, 1개 기초단위당 선정단체 1억원 정액지원
 문화취약형 40억원, 1개 기초단위당 선정단체 1억원 정액지원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총괄 및 정책방향 수립 및 관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정책 방향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및 기획·운영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공모/보조금교부·정신 등), 사업관리
사업기획·자문단	■ 정책사업 성과 확보 및 확산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성과 분석 등
운영기관·단체·시설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전반(인건비, 재료구입, 기자재임차 등) ■ 사업추진상화보고 및 정산·실적보고

예술로 어울림 영덕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영덕군의 지역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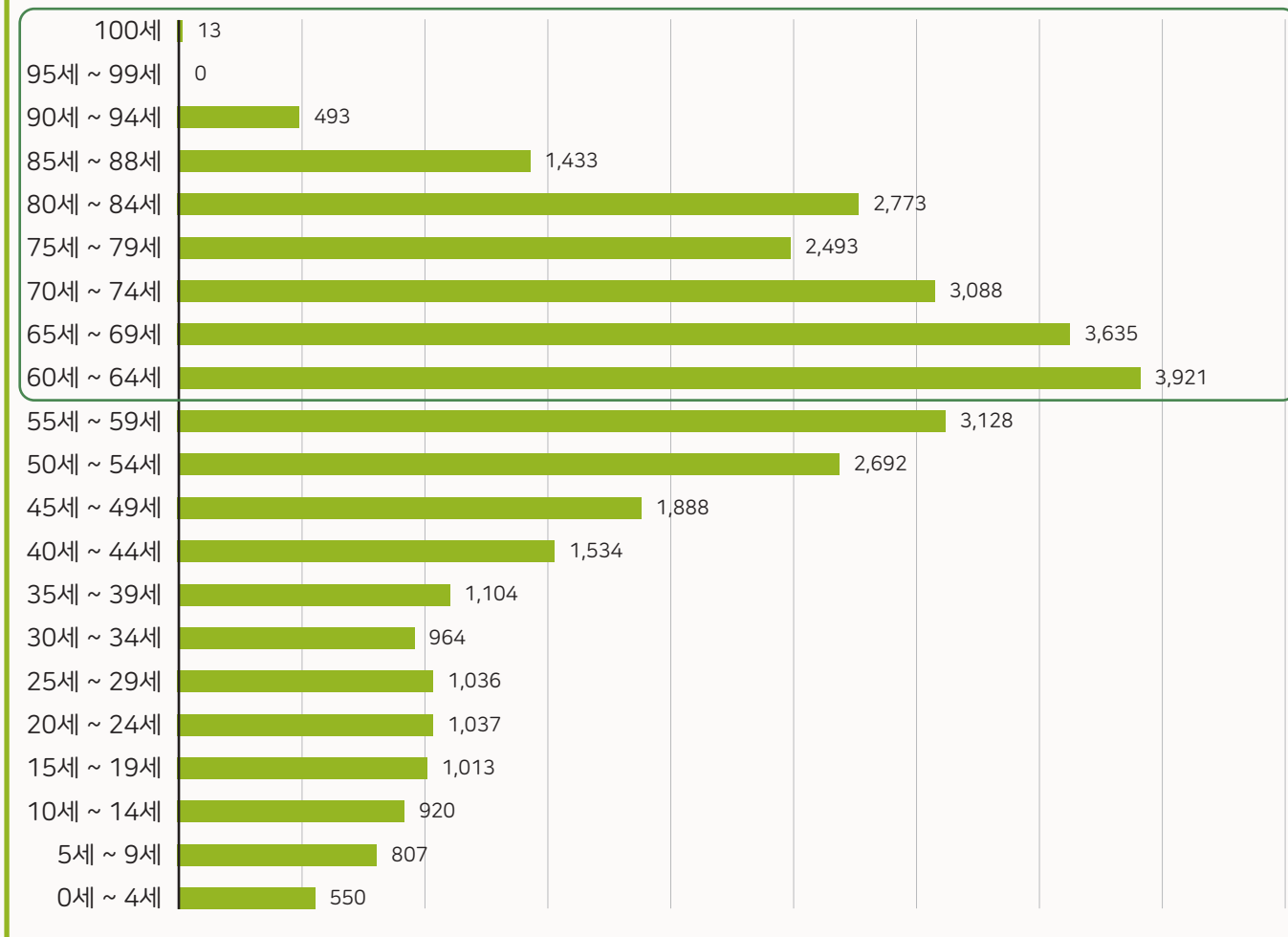
■ 인구소멸지역 및 문화환경 취약지역

- 초고령화 사회이자 지역 청소년 유출 증가
- 60세 이상 인구 비율 50% 이상이며 영덕군 총 인구 3만3천 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4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78가구(2,659명) / 저소득 및 한 부모가정 158가구(375명)

연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고등 감소율
2020	1,062	623	548	48% 감소
2021	1,072	601	523	51% 감소
2022	1,042	566	497	52% 감소

영덕군

■ 영덕군



■ 낮은 재정 규모와 문화예술 관련 예산 부족

- 영덕군의 재정규모가 낮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 2022년도 대비 문화예술 관련 예산 30% 감소

■ 지역 기반 인프라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인프라 (학교 및 복지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11개소, 초등학교 9개소 중·고등학교 12개소 (중학교8/고등학교4) 공공도서관 1 청소년수련시설 4 체육시설 (44) 영덕 청소년문화의집
교육 관련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소멸지역 및 문화취약지역이라 예술 관련기관이 부재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타 인프라 (문화향유기관, 수련관 및 공공시설, 의료 및 상담기관, 방범기관, 후원기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력발전단지(해맞이공원/정크&트릭아트/전시관신재생에너지전시관) 공연장 1 (문화예술회관) 영덕아산병원 공공도서관 1 군민회관 1 생활문화센터 2 (예주생활문화센터, 영덕읍생활문화센터)

사업명 2024 예술로 어울림_문화취약형_영덕

(단위 : 회차, 시수, 명)

사업기간 2024년 7월~11월

사업내용 문화취약지역이자 인구소멸지역인 영덕에서 다양한 연령대, 지역의 참가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즐기며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넓힘

주요사업내용

-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문화예술교육 진행
 - 생애주기별로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상이하기에 그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후 진행
 - 나이마다 문화예술교육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고 결과치가 다르기때문에 구분을 지어 진행
- 지역 권역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 취약 지역 내에서도 특히 오지 마을로 찾아가 마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 직접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년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권역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권역 문화예술 거점을 개발
- 마을회관 및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
 - 지자체와 이장 협의체들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마을에 찾아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도록 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
 -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통해 지역에 선순환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감
- 성과공유회를 통한 참여자들의 지역사회에 환원
 -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도출된 결과물을 지역민들 대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결과물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연번	프로그램 명	유형	회차	시수	참여대상	참여인원	장소	참여강사	
								주	보조
1	컬러풀 댄싱키즈	정규	20	60	아동	20	영덕 새마을금고 3층	2	1
2	영덕 무대 잇단	기획	20	60	영덕군민	15	예주문화예술회관	1	1
3	영덕zoom인	정규	20	60	중장년	20	예주문화예술회관	1	1
4	the 울림	정규	20	60	아동청소년	15	영덕 새마을금고 3층	3	0
5	손에서 피어난 이야기	정규	20	60	아동	20	예주문화예술회관	1	1
6	도란도란 예술마을	기획	35	105	노년	35	마을회관 7곳	1	1
7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기획	20	60	노년	15	영덕 도서관	1	1
8	뮤지컬 인사이드미	정규	20	60	청소년	15	영덕 새마을금고 3층	1	1
9	괴시마을 전통이야기	기획	10	30	노년	15	영양남씨 종택	1	1
10	결과공유회	기타	2	10	영덕군민	85	영덕읍 덕곡천	7	3
합계			187	565		255		19	11

2

정규형 프로그램

컬러풀댄싱키즈

영덕 무대잇단

영덕쑈인

더 울림

뮤지컬 인사이드 미

컬러풀댄싱키즈

컬러풀댄싱키즈 강사소개



주강사
김명훈



조지령



보조강사
이용택

수업 전 인터뷰

Q. 컬러풀 댄싱키즈_어린이 발레를 어떻게 알게되었나요

A. 엄마가 신청했어요

Q.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발레를 2~3년 배워봐서 발레에 관심이 많습니다
발레에 대한 공연을 많이 봐서 로망이 있어서 하게 되었다

Q. 발레를 통해 배우고 싶은게 무엇인가요?

A. 잘 모르겠어요
다리찢기, 발레 바 연습, 점프.
턴, 유명한 발레리나 나온 작품을 배우고 싶어요
유연해지고, 날씬해지고 싶어요.

Q.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잘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배울 수 있게해주세요
다리 찢기를 잘 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후 소감

강사

김명훈

발레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춤으로 즐거움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고 호두까기 작품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순서를 빨리 따라와 줘서 진도도 엄청 빨리 나갔고 무언갈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너무 강했어서 영덕 어린이들에게 큰박수 보냅니다.



조지령

7월부터 약 3개월동안 1주일에 한번씩 어린이발레 수업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것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선 어린이발레는 발레를 한번도 접해본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일주일 내려갈때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힐링되고 매번 좋은 기운들을 받아갈수 있었던거 같아요. 차 타고 이 먼 거리를 왔다갔다하는거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지만 그 만큼 보람도 있었고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꺼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발레 영덕문화재단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자 소감

여기서 배울 수 없는 발레를 배워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어요!

작품을 익히느라 너무 많이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밖에서 퍼레이드하고, 사람들 앞에서 배운 걸 선 보인게 가장 재미있어요

다음에도 배우고 싶어요!

3개월 동안 너무 신났고 금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내년에도 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었고, 김명훈선생님, 조지령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덕 무대 잇단

영덕 무대 잇단 강사소개



주강사
장임순



보조강사
최지연

수업 전 인터뷰

Q. 영덕 무대 잇단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모집안내가 떠 있어 알게 되었다.

Q.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원래 연극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였다
연극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하는 마음에 참여하였다

Q. 연극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A.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또 다른 나를 찾아보고 싶다
잠시나마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

Q.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잘 가르쳐주세요!
즐겁게 배우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 인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만의 연극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수업 후 소감

강사



장임순

한 곳을 바라 볼 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인 벤스타인은 말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바로 영덕 군민연극단 단원분들이다. 가족을 위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를 위해 또다른 삶을 찾아가는 분들..... 연극이란 주제하에 함께하는 시간은 그 누구하나 망설임 없이 최선을 다해 즐기고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소히 챙기고 참여하는 모습에서 이보다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반문을 해 본다. 목은 이색 선생의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본을 각색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내가 몰랐던 나의 강점들을 찾아가는 모습은 놀라움의 시작이었다. 내가 사는 곳의 역사를 알게 되고 역사의 인물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연극.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묘한 매력의 연극. 영덕 군민연극단 단원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설렘으로 이번 수업도 마무리 된다.

최지연

"함께" 라는 단어가 주는 힘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유지하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다. (미국-헨리포드) 어느 기업가의 말이 떠오른다. 연극이라는 도전을 위해 우리는 모이기 시작하였고, 연극의 기본을 배우며 지역의 인물을 연구하고 작품을 구상하며 3번째 작품으로 모두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하였다. 수개월간 매주 밤에 만나 대본을 외우고, 동선을 맞추고, 노래와 춤을 연습하고 인물을 잘 표현해내고자 서로가 조력자가 되어 우리는 또 한번 이루어 내었다. 세상엔 참 좋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하는 단어를 뽑으려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닐까 한다. 연극도 그렇다 모두가 함께라서 가능한 것이다. 이번 군민극단 수업에서의 시간들은 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참여자 소감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고령화 세대의 문화향유를 위한 이 수업이 너무 감사합니다.

생활연극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수업 후로도 연극단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수업 덕분에 사회생활을 배우고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배우보고 싶습니다

영덕 줌인

영덕 줌인 강사소개



주강사
정혜원



보조강사
김수민

수업 전 인터뷰

Q. 영덕 줌인을 어떻게 알게되었나요?

A. 영덕문화관광재단 인스타, 홈페이지 등 SNS 통해 알게 됨

Q.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운동을 하기 위해
춤에 관심이 있어서, 즐거운 여가 생활과 보람찬 주말 활용
새로운 경험을 위해

Q. 춤을 통해 배우고 싶은게 무엇인가요?

A. 살도 좀 빠고, 댄스도 배우고 싶다
신나는 춤을 배워 생활의 활력을 갖자
커버댄스, 새로운 춤,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Q.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재미있는 댄스로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다양한 댄스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수업 부탁드립니다
요즘 노래도 좋지만 8090 노래도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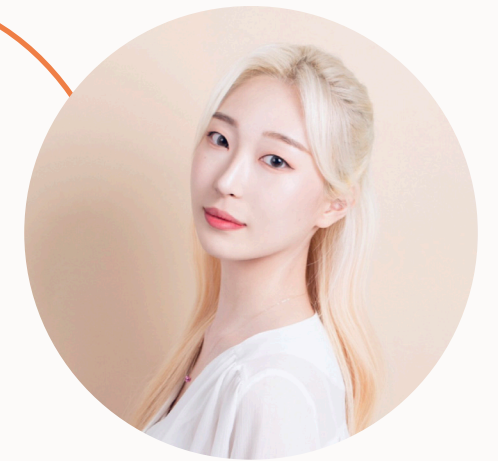


수업 후 소감

강사

정혜원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올해 처음 같이 하게된 분들이랑 같이 수업을하면서 수업의 분위기가 더 좋았던것 같습니다. 안무 순서를 익히는 속도가 빨라졌고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면서 단합력이 좋아졌으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힐링되는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않았던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강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중년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늘 아이들만 가르쳐 어머님들에게 동작설명을 해야할지, 알려드려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웃고 놀면서 중년들도 아이들만큼의 에너지와 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어머님들의 정에 3개월간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중년 대상 무용 수업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을 만큼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소감

다양한 분야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 좋고, 또 다시 기회가 닿으면 배우고 싶다

계속적인 문화활동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말이 즐겁습니다.

중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 많이 개설해주세요.

내년에도 그 후로도 좋은 프로그램 열어주세요

다음에도 방송 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과 내년에도 꼭 하고 싶습니다!

더 올림

더 올림 강사소개



주강사
박수빈



김혜준



이상화

수업 전 인터뷰

Q. 더 올림을 어떻게 알게되었나요?

A. 엄마가 신청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Q.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재미있어 보여서
바이올린을 잘 하고 싶어서요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싶어서요

Q. 앙상블을 통해 배우고 싶은게 무엇인가요?

A. 바이올린이요
첼로를 배우고 싶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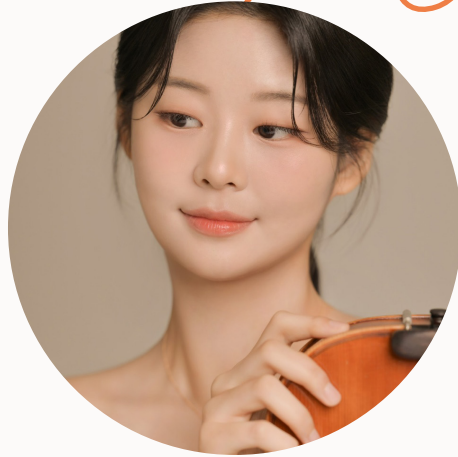
Q.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바이올린을 처음 배워서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곡을 마음껏 불러보고 싶습니다
플루트를 좋아하는데 플루트를 잘 하고 싶어요



수업 후 소감

강사



박수빈

안녕하세요, 청소년 앙상블 더 울림 바이올린 강사 박수빈입니다. 아이들의 열정만큼 뜨거웠던 여름을 시작으로 제법 쌀쌀해진 지금까지, 약 5개월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려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이올린을 배운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고, 게임을 배우게 된 친구들이 더 많았기에 모두가 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매주 열심히 따라와 준 아이들 덕분에, 함께 무대에서 연주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들과 저에게 큰 성취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강사이기 전에 악기를 먼저 배운 선배로서, 앞으로의 앙상블 연습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덕군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발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값진 경험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앙상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를 바라며, 더 다양하고 풍성한 수업을 준비하며 다시 아이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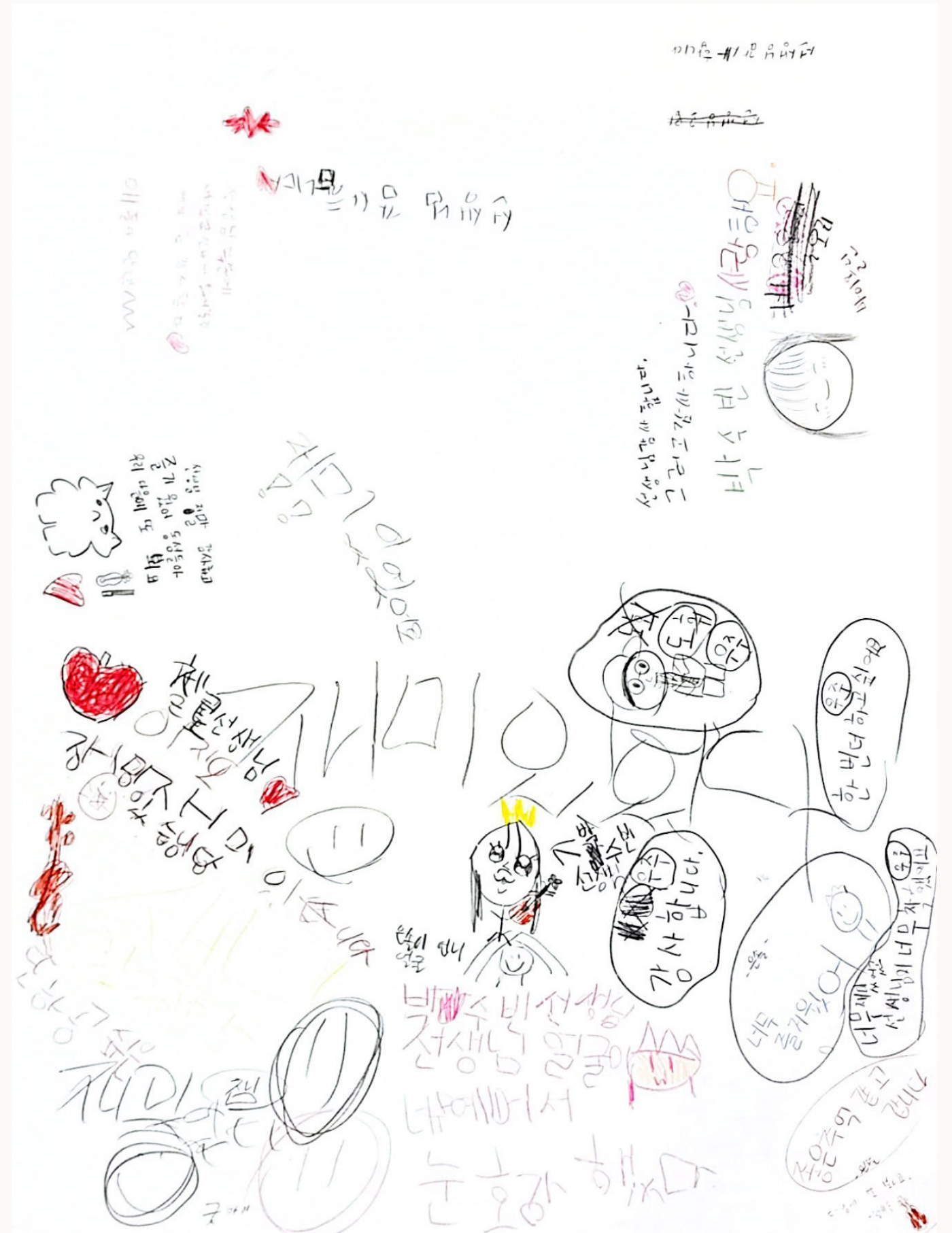
서로가 다 다른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중해서 연습하고 하나씩 배워가며 점차적으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매우 뿌듯함을 느꼈고 악기를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이 거부감없이 악기 뿐만 아닌 음악을 배우며 다함께 소통하고 협동하여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니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이상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레슨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매주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열정과 끈기에 동기부여가 되어 매주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분 집중하는것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10분동안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게임도 모르던 아이들이 어느새 수업이 시작되면 자랑하듯 연습한 부분을 불며 뽐내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대견했으며,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며 수업기간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훨씬 다양한 음악을 만들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더욱 많은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합주를 하며 감수성 발달과 집중력 향상,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소감



뮤지컬 인사이드 미

뮤지컬 인사이드 미 강사소개



주강사
박명선



보조강사
이정원

수업 전 인터뷰

Q. 뮤지컬 인사이드 미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엄마가 알려줬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Q.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꿈이 연기 쪽이어서요
뮤지컬을 배워보고 싶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배우를 진로로 두고 있어서요

Q. 뮤지컬 수업을 통해 배우고 싶은게 무엇인가요?

A. 연기와 댄스를 잘 하고 싶어요
뮤지컬을 잘하는 법
연기와 노래
공연 예술을 깊게 배워보고 싶다

Q.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연기를 독학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좋은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수업 후 소감

강사

박명선

나에게서 출발하는, 나를 이해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인 표현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아마도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할 때 정확히 사과할 줄 아는 것을 연기를 행함으로써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의 열정과 표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그 때가 행복했다면 강사로서 더할나위 없이 행복했던 기억으로 간직할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날의 감정을 간직한 배우로서 있어줘서 강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정원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솔직한 감정을 전하려는 학생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음정과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재미뿐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기세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매수업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의도에 맞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두려워 하지 않고 프로 배우처럼 공연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여자 소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고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꿈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합을 맞춰보고 공연한 것이 맛있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 못하고 눈치만 슬슬 살피면서 할거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점점 재밌고 연기에 대한 걱정이 들었지만 괜찮게 잘 되거 기뻐고요, 가장 좋았던 건 선생님들과 수업을 같이 들은 동생과 오빠들이 다 너무 착하고 다정해서 너무 좋았어요

뮤지컬 수업을 여러 명이 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알게 돼 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기획형 프로그램

도란도란 예술마을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손에서 피어난 이야기
괴시마을 전통이야기

도란도란 예술마을

도란도란 예술마을 강사소개



주강사
문봉규



보조강사
남준경

교육프로그램 구성





수업 후 소감

문봉규

작년 2023년 주민들과 솟대랑 크리스마스 트리체험을 영덕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여러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환경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하는 제의를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본 덕곡천의 크기는 어마어마 했습니다 워낙 넓은 곳인지라 한참을 둘러 봤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주민들 작품이 주인공이 되는 환경미술의 모습을 상상하며 축제도 시작하기전에 궁금증과 기대가 컷습니다. 활동은 멀하며, 가서 뭐하면 좋을지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경주를 지나 국도를 따라 올라가는 드라이브 길은 점점 익숙해 지면서 영덕 가는길은 멀지만 저절로 힐링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회관 어르신, 학교 어린이들과도 가까워 지니 그림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평생 그림이라곤 모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낙서같은 그림은 너무 애뜻 했습니다. 바다를 향해가는 배를 그리는 어린이들의 그림은 힘찬고 계란판에 물감을 튕겨가며 노는 아이들과 신문지 찢어 만들어가는 종이조각도 재미났습니다. 해바라기가 이쁘다며 첫 시간에 밭에서 꺾어온 해바라기도 좋았습니다. 조개라면 걱정말라며 더운 날 조개를 한자루 주워 냄새라도 날까 씻고 씻고 해서 가져온 조개껍질은 반질반질 했습니다. 해변가 주위에서 재활용 캔을 모아 깨끗이 세척해서 수업준비를 도와주신 분들과 자랑거리 없다더니 여기저기 마을의 집을 사진 찍어 오시는 회장님의 열정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조금 물려나 있던 어르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가까이 다가와 작업을 하게 되니 멀리서 온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남준경

이글거리는 태양, 2024년 8월 한달동안 지금까지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영덕이라는 곳을 업사이클, 예술로의 이름으로 체험 프로그램 보조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경주로 나와 포항에서 동해안으로 난 7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면 목진한 동해바다와 묵묵한 들녘과 산 그리고 소나무, 굽어지는 도로와 함께 장사해수욕장이 나온다. 영덕에 다 왔다는 신호이다. 북쪽으로 보이는 풍력발전소의 바람개비가 보이고, 잠시 올라가 강구를 통해 영덕읍으로 진입한다. 영덕군은 9개의 읍면이 있다고 들었다. 영덕읍, 강구면, 병곡면, 영해면에 있는 협력기관 기관단체 생활문화센터인 영덕도서관, 고래산마을, 영덕생활문화센터 강구마을 돌봄터, 영2리, 이천리, 영4리, 병곡2리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에게 계란판 인물화, 나만의 페트병 배 만들기, 박스로 사람과 사물만들기, 커피컵으로 바다 꾸미기, 폐생활용품으로 해바라기꽃 만들기, 캔으로 물고기 만들기, 조개로 고래 꾸미기, 생선상자에 본인 동네 어반스케치하기 등등 "쓸모를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업사이클 체험수업을 진행했다. 8월 한달동안 체험수업 내용 뿐만아니라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친절하고 정이 많으신 마을어르신, 수업 내용이 좋다면 즐거워 하시는 모습과 생기 넘치고 발랄한 영덕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영덕의 자연풍광, 거리풍경, 풍성한 음식, 그리고 정이 많은 영덕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며, 한달간의 영덕에 대한 이미지와 이야기 추억들이 가슴벅찬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 강사소개



주강사
황지희



최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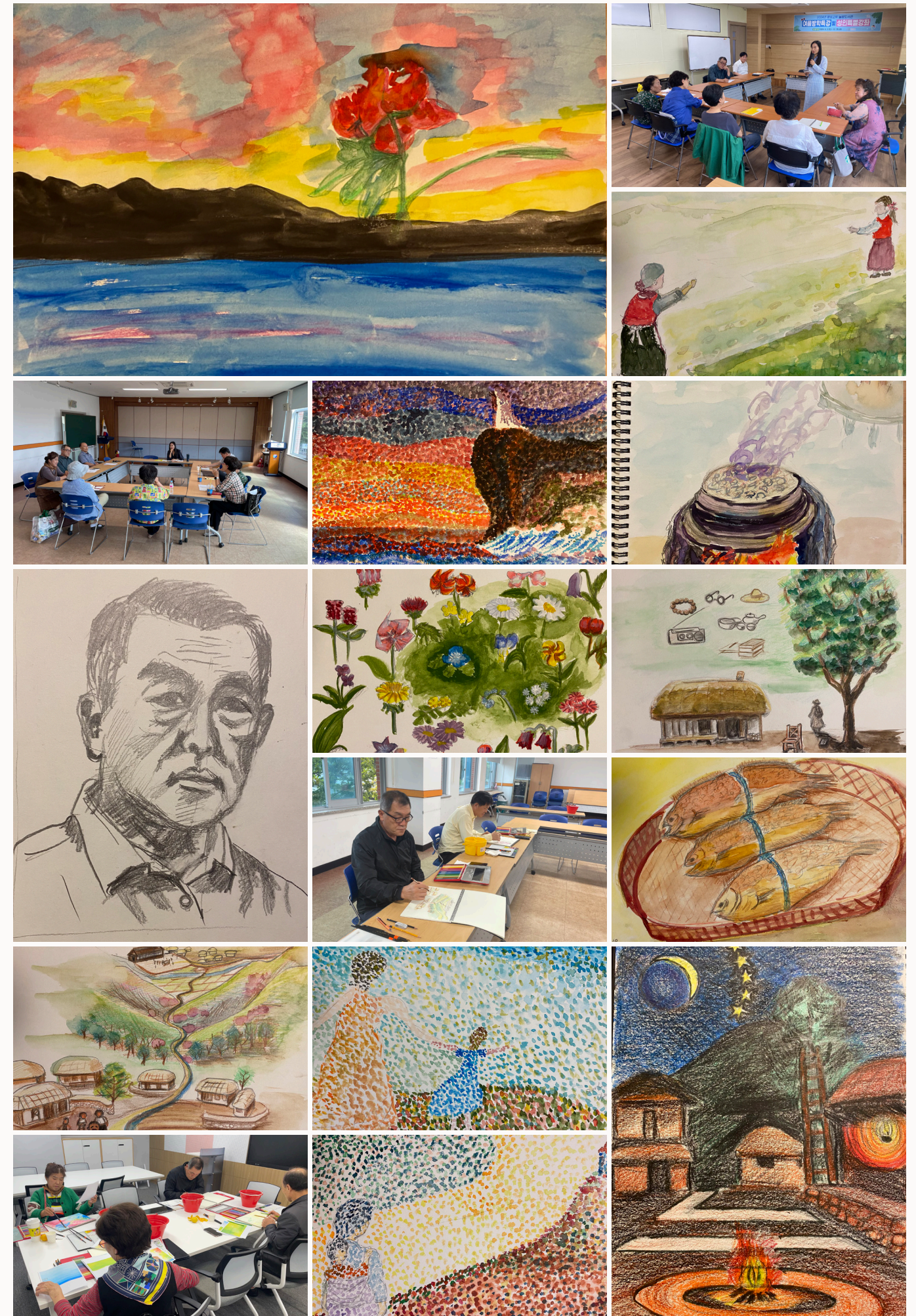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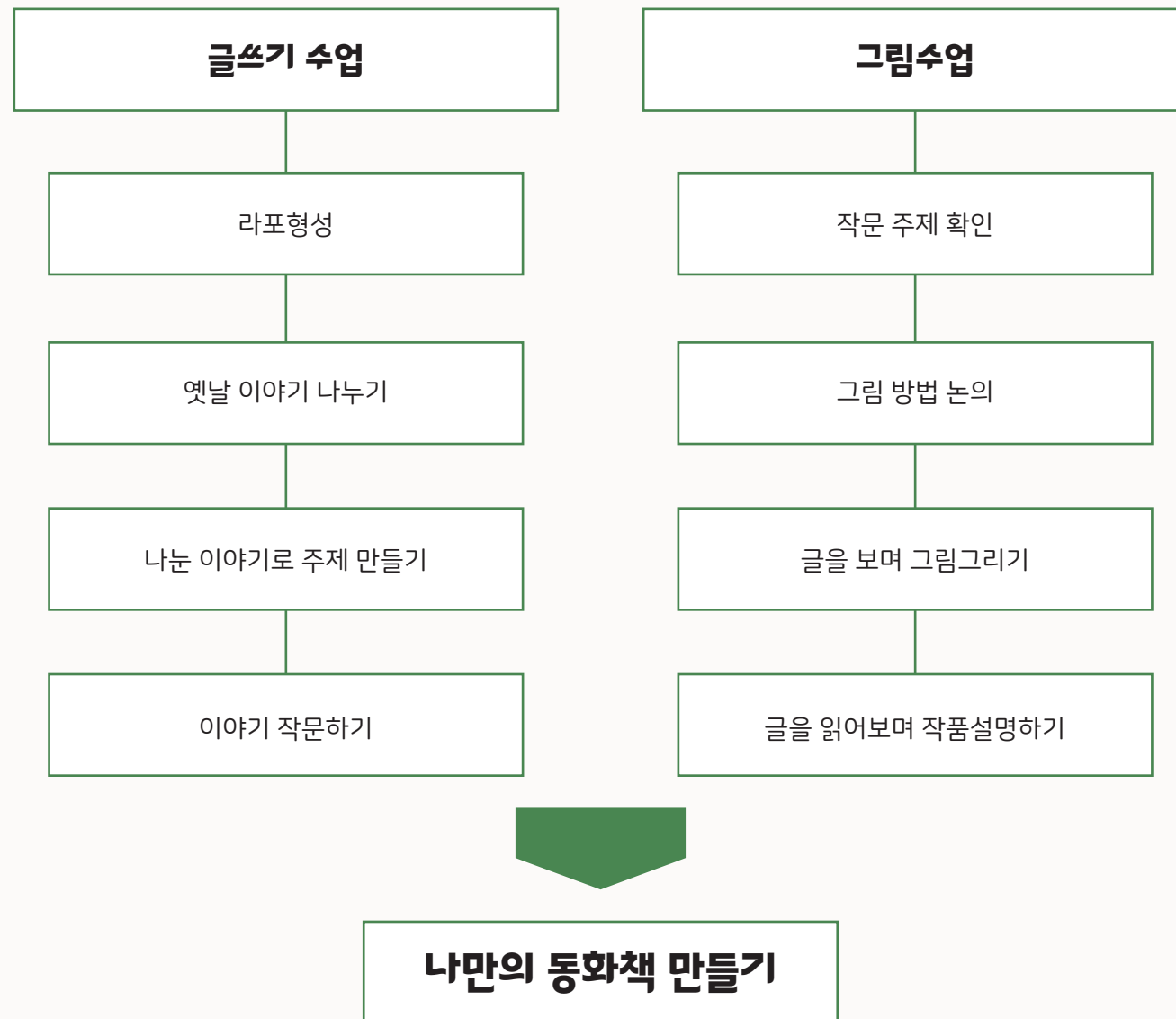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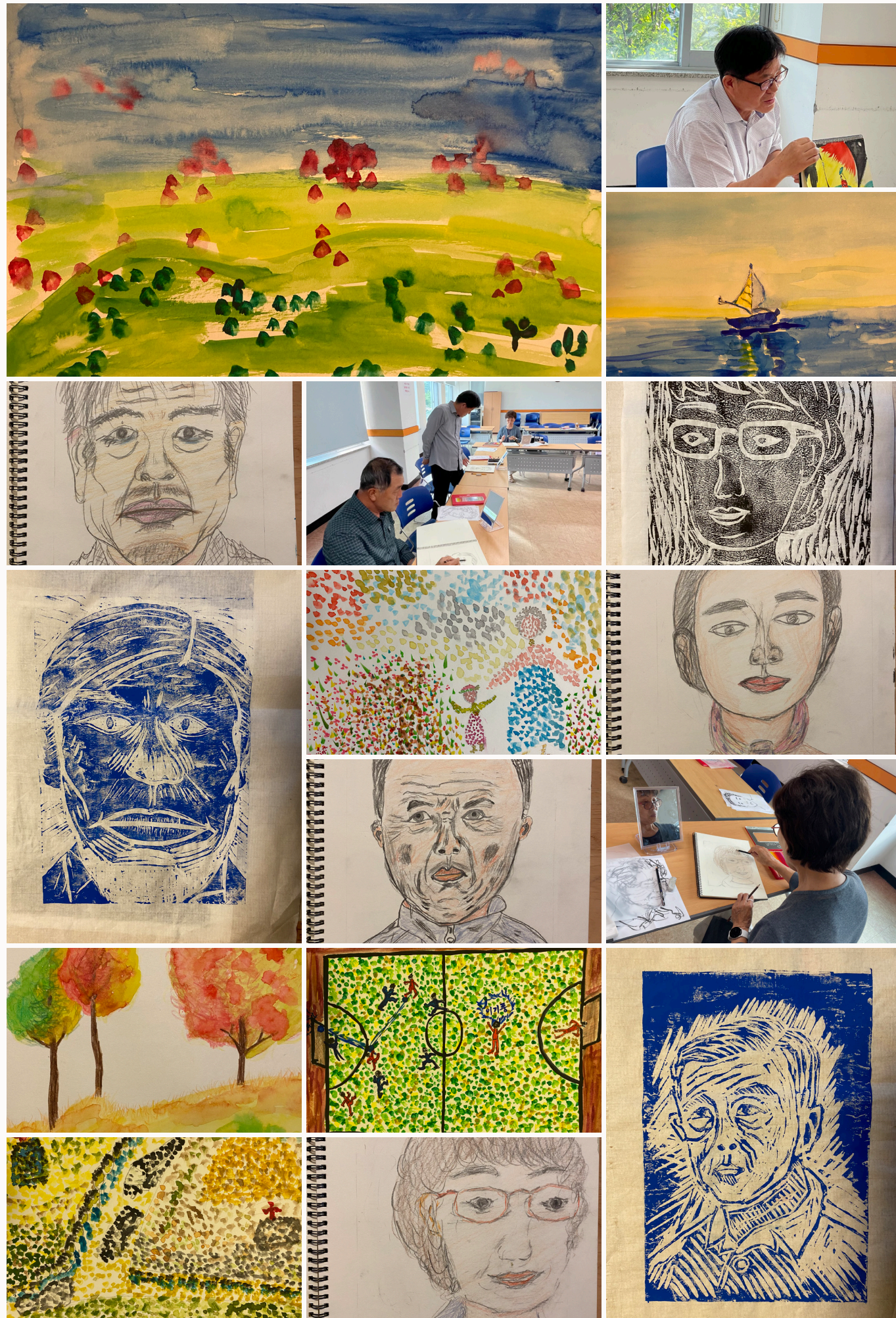
보조강사
김충현



차은주

교육프로그램 구성





수업 후 소감

황지희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며, 소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감사일기"로 시작해 "나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점점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운 냄새"와 같은 주제에서는 각자의 기억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창의력이 빛났습니다. 강사로서 느낀 점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활동을 넘어 참여자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최경희

[있는 그대로 그림편지]는 참여자들에게 창작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주제에서 한 참여자가 진심 어린 편지를 낭독했을 때, 공간이 따뜻한 감동으로 채워졌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한 전달을 넘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또한,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참여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창의적 표현의 즐거움을 선사한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잠재력을 실감한 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피어난 이야기

손에서 피어난 이야기 강사소개



주강사
김소연



보조강사
강리안

교육프로그램 구성

브레멘 음악대 알아보기	
각자의 동물 선택하여 성격 만들기	
동물 가면 만들기	
동물 옷 만들기	
내가 꾸민 가면과 옷을 입고 함께 걸어보기	





수업 후 소감

김소연

[손에서 피어난 이야기]는 만들기를 바탕으로 한 소근육 강화 등의 목적을 중점으로 한 창의적 사유 강화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만들기 활동으로 소근육 감각을 살리고, 하나의 자기 표현 방식을 제안하는 손에서 피어난 이야기에서 참여자들을 만나 수업을 진행하며 여러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참여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손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도 장난을 걸어내고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꽤 긴 시간 만나온 아이들과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니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듯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더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리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아동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한창 크는 시기의 아이들은 소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 가위질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쌓이다 보면 아이들의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매 회차 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해내는 아이들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곤 했습니다. 처음엔 좋아하는 색조차 말하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이 이후에는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을 하니 벽 없이 아이들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표현해내는 작업을 의미있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괴시마을 전통이야기

괴시마을 전통이야기 강사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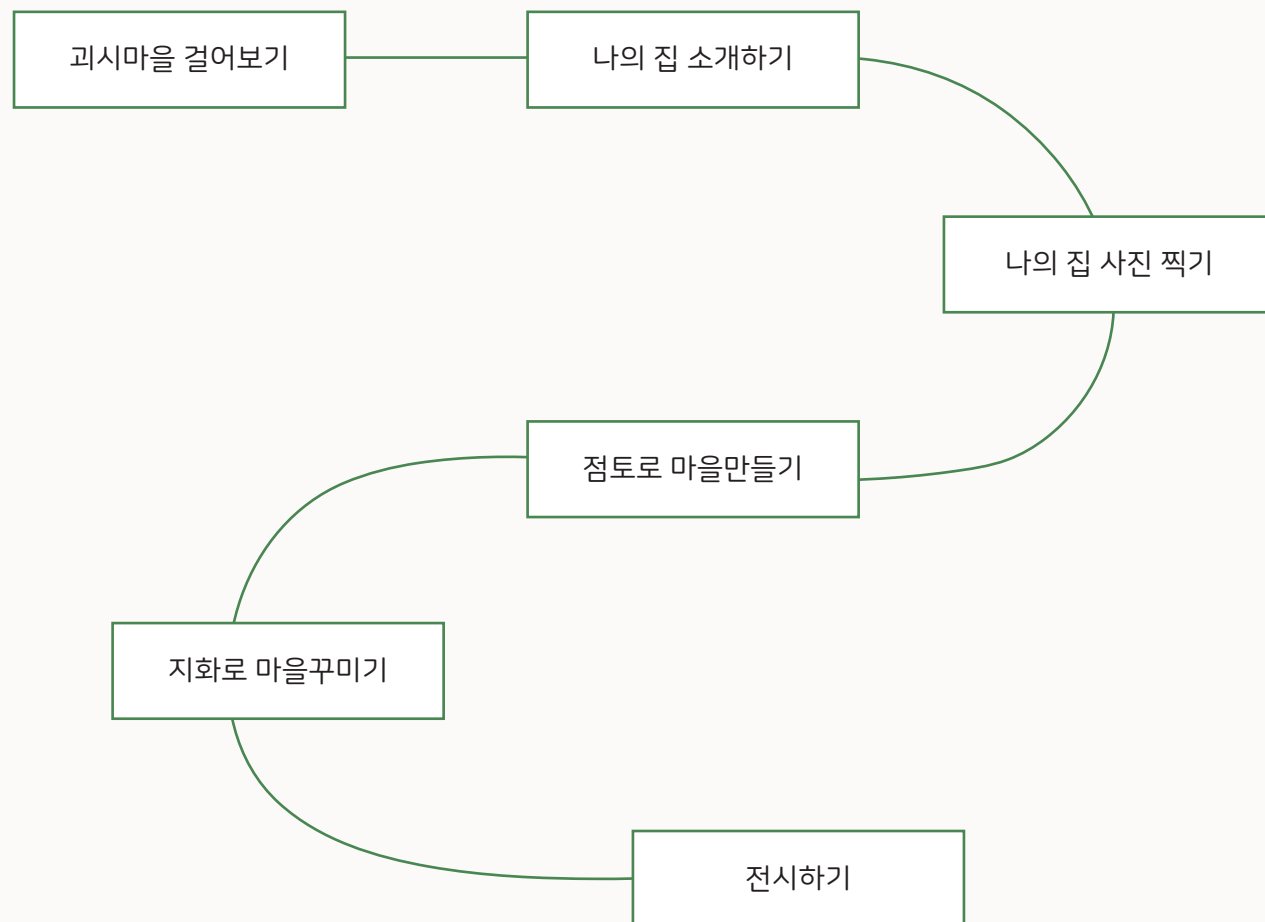


주강사
문봉규



홍효진

교육프로그램 구성





수업 후 소감

문봉규

수업 전 괴시리 한옥마을에서 숙박을 했는데 돌담집에 느껴지는 첫인상이 따뜻함과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괴시마을을 함께 거닐러 보고, 지금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소개 받고 역사를 들어보며 마을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수업에 앞서 늘 할머니 한분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작은화병에 꽃의 향기가 코끝을 찔러 눈과 코와 귀가 다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몰입을 했고 완성도 높은 진지한 열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쁘게 시간이 지나갔고, 바쁜날은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영덕 이동으로 체력도 급격히 소모 되기도 했지만 나는 무척 운이 좋았다고 생각 됩니다.



홍효진

저는 민요를 전공하여 별신굿에 들어가 지화도 함께 만들고 있는 국악강사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여자들이 예술을 저희를 통해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 행복 했고 짧은 시간이어서 너무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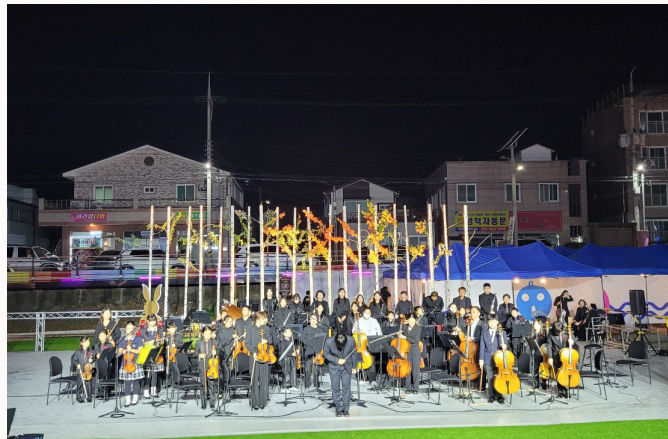
4

결과공유회

컬러풀댄싱키즈



더 올림



영덕쑈인



도란도란 예술마을



무대 잇단



뮤지컬인사이드 미



발행일 |

발행처 | 영덕문화관광재단

기획·진행 | 문화예술팀 김민섭 팀장 예술교육 김명주 주임, 어영훈 주임, 윤선경 주임

연락처 | 054-730-5830

주소 |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6 2층

홈페이지 | www.ydct.org

디자인 |